오늘 본문인 11장부터의 말씀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장의 부정한 짐승이나 먹을 만한 음식에 대한 말씀, 12장의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 또한 13장의 피부에 생기는 나병과 각종 피부병 그리고 14장의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나 집에 생기는 곰팡이 등의 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분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11:44부터의 말씀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우리에게는 짐짓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믿고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는 네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도 거룩하라" 는 이 말씀이 왜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거룩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이나 엄숙한 분위기를 가리켜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룩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룩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올바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거룩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외적인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7,80년대에는 (지금도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찬양 시간에 피아노나 오르간 이외의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양복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강단에 올라가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강대상이 있는 강단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며 그 강단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도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제가 전도사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역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자주색 기타를 치는 것이 경건해 보이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주일 '대'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는 것과 그 기타의 색깔 이 두 가지를 문제 삼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드린 이런 예들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신 것도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인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거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은 거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거룩해 본적도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거룩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가장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도리어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다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자신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도리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삶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9:41)."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9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며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모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5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거룩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후10:18)."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24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과 외적 행위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종교 생활과 외적 행위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거룩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거룩은 영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변화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히2:11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내면의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사람에게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만드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마15:19-20)"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외식인 것입니다. 거룩은 내면의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은 윤리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측면은 내면적인 도덕과 외향적인 윤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3:12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22:21 말씀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23:4-5에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도 높은 기준을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형제 자매와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요14:23-24)."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